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 482-490,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48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른 학교 참여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 차이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and School Involvement of Mothers According to Changes in of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Hyo-Sik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11차(2018년)의 1,4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은 3개(상수준 감소 집단,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무변화형 집단)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형),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이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3(중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학교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 학교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atent classes based on changes in subjective happiness of mothers and tested its relationships with grit, life satisfaction of their children, and mother's school involvements for their children from early childhood to primary school age. The 1,450 7th(2014) to 11th(2018)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by growth mixture model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changes in subjective happiness tended to decrease overall as children grew, and their happiness was distinguished by three distinct latent classes: high-level decreased group, low-level unchanged group, and mid-level unchanged group. Secon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it and life satisfaction were reported in 4th grade based on the latent classes. Specifically, children whose mothers belong to the high-level decreased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rit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e other groups. Third, mothers who belong to the high-level decreased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hool involvement when their children were in 4th grade. Th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increase the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to encourage psychological adaption of children and mother's school involvements.

Keywords : Subjective Happiness, School Involvement, Grit, Life Satisfaction, Growth Mixture Modeling

이 논문은 2021년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e.ac.kr
Received June 8, 2021 Revised June 22,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삶의 다양한 영역(예: 일, 사랑, 건강)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는 긍정적인 기분 및 정서가 긍정적인 자기와 타인 표상, 친사회성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이끌기 때문이다[1]. 특히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신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자녀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2-4]. 부모의 긍정적 정서는 온정성, 반응성 등의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5, 6].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어머니의 행복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녀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어머니의 행복감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횡단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에 기초하여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복감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변화 궤적에 따라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자녀 발달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 변화 궤적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차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그동안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주로 자녀특성 요인, 가정배경 요인,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7, 8],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따라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있는지 탐색하고, 탐색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학문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으로 알려진 행복감은[9]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10]. 안녕감과 행복감은 문헌에서 교체 사용이 가능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 정서로 측정될 수 있다[11].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개인은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낮은 개인보다 자신과 삶에서 겪는 사건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다[12].

부모의 심리 및 양육 특성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교우관계[13]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과 자녀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4].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0], 이에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을 매개로 집행기능곤란이라는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특히 어머니의 행복감은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4],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자아탄력성 및 생활스트레스를 완전매개로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부모의 양육 특성은 장기적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그릿[15 재인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15, 16], 부모-자녀 간 애착은 그릿을 매개로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17].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 및 행복감 수준에 기초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양육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6].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 자녀의 그릿을 매개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32]. 특히 벌점화 회귀모형에 기초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비일관성)가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6]. 부모와의 애착 수준은 낙관성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8], 이는 부모가 더 큰 행복감을 느낄수록 자녀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19],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20], 학업성취[21]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40], 학교와의 소통 및 학부모의 교육기부는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20]. 학부모의 학교 참여 동기는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가 학부모 학교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8].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학교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울한 어머니는 양육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고, 양육에 대한 동기, 에너지, 자신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22].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2],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 또한 학교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1.2 연구 문제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따라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있는지 탐색하고, 탐색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따라 어떤 잠재계층이 존재하는가?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11차(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차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해당한다[23].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7차(2014년)~11차(2018년)자료,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부모 참여는 11차(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5개 연도 중 3개 연도 이상 무응답인 자료를 제외한 1,4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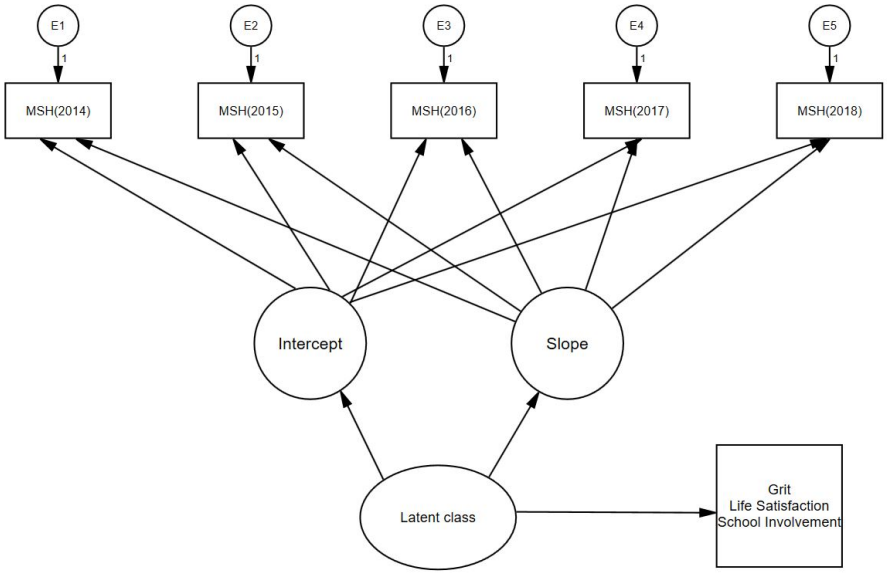
2.2 연구 도구

2.2.1 주관적 행복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확인하기 위해 Lyubomirsky과 Lepper[10]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개 연도(7차(2014년)~11차(2018년))에 동일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에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⑦ 매우 행복하다 중 하나에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차 α=.878, 8차 α=.895, 9차 α=.894, 10차 α=.919, 11차 α=.914이다.

2.2.2 그릿

한국아동패널(11차, 2018년)은 아동의 그릿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명, 황매향[24]의 끈기(grit) 척도의 8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 MSH: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Fig. 1. Research model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방식이다[23]. 문항은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616이다.

2.2.3 삶의 만족도

한국아동패널(11차, 2018년)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총 3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4점 Likert 척도(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방식이다[23]. 문항은 '○○(이)는 ○○(이)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등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742이다.

2.2.4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한국아동패널(11차, 2018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니까?'이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815이다.

2.3 분석 방법

연구 문제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Mplus 8.3,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25]. BCH 방법은 잠재계층에 따른 결과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3단계 추정방법 중 하나이며, 3단계 추정방법은 잠재계층이 독립변인과 결과변인으로 인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진다[37 재인용].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통해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어머니, 아동의 정보를 11차(2018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1명(.1%), 30대 452명(31.2%), 40대 853명(58.8%), 50대 19명(1.3%), 무응답 125명(8.6%)이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초졸 1명(.1%), 중졸 4명(.3%), 고졸 350명(24.1%), 전문대졸 389명(26.8%), 대졸 491명(33.9%), 대학원졸 85명(5.9%), 무응답 130명(9.0%)이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741명(51.1%), 여아 709명(48.9%)이며, 아동의 월령은 121개월 11명(.8%), 122개월 139명(9.6%), 123개월 338명(23.3%), 124개월 421명(29.0%), 125개월 301명(20.8%), 126개월 35명(2.4%), 127개월 35명(2.4%), 128개월 22명(1.5%), 129개월 8명(.6%), 무응답 140명(9.7%)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9	1	.1
	30-39	452	31.2
	40-49	853	58.8
	50-56	19	1.3
	No response	125	8.6
Mother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d	1	.1
	Middle school graduated	4	.3
	High school graduated	350	24.1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89	26.8
	University graduated	491	33.9
	Graduate school graduated	85	5.9
	No response	130	9.0
Child's gender	Male	741	51.1
	Female	709	48.9
Child's age (months)	121	11	.8
	122	139	9.6
	123	338	23.3
	124	421	29.0
	125	301	20.8
	126	35	2.4
	127	35	2.4
	128	22	1.5
	129	8	.6
	No response	140	9.7

3.2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타당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곡선변화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차곡선변화모형의 경우 −0.864의 1차항과 2차항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26],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중 적합도가 더 좋은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017만큼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Model fit indices

Model	χ^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Mean			Variance		
							I	L	Q	I	L	Q
No growth	81.491***	13	.981	.985	.060 (.048-.073)	.060	5.197***			.666***		
Linear	29.130**	10	.995	.995	.036 (.021-.052)	.043	5.232***	-.017**		.738***	.015***	
Quadratic	11.452	6	.998	.997	.025 (.000-.047)	.020	5.239***	-.031	.003	.688***	.053	.004**

* p<.05, ** p<.01, *** p<.001, I: Intercept, L: Linear, Q: Quadratic

Table 3. Tests of unconditional models with 2-5 classe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2	17553.706	17606.499	17574.733	.841	.0000	.0000	38.4	61.6			
3	16934.139	17002.770	16961.473	.869	.0460	.0000	52.6	3.9	43.5		
4	16506.081	16590.550	16539.724	.808	.0000	.0000	28.3	40.6	28.5	2.6	
5	16427.045	16527.352	16466.996	.743	.0205	.0000	28.8	2.5	35.3	12.1	21.3

성장혼합모형(선형변화모형 기초)을 통해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양상에 따른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였으며, 잠재계층을 2개로 가정한 모형부터 5개로 가정한 모형까지 비교하였다(Table 3 참조). AIC, BIC, SABIC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인 것을 의미하는데, 모형의 잠재계층의 수가 2개부터 5개까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의 값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분류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Entropy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최대값인 1에 가까울수록 잠재계층 분류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형3이 .869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모형 간 비교 검증 결과를 보여주는 LMR LRT와 BLRT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때 잠재계층의 수를 많이 설정한 모형이 잠재계층의 수를 적게 설정한 모형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형2에서 모형5로 증가할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3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 정보지수, 분류율 및 분류의 질, 모형 비교 검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개로 잠재계층이 구성된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확률평균(mean posterior probabilities)은 각 잠재계층에 속할 것으로 분류된 연구 대상이 실제로 그 잠재계층에 속하게 되는 확률을 의미하며[39], 최종 선택 모형(잠재계층 3개)의 평균 사후확률이 .928~.947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4, Fig. 2. 참조). Fig. 2는 5년 동안의 각 잠재계층별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상수준 감소 집단'은 763명(52.6%)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5.899(p<.001), 선형변화율 -.023(p<.01)이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57명(3.9%)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210(p<.001), 선형변화율 -.041(p>.05)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중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630명(43.5%)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4.621(p<.001), 선형변화율 -.006(p>.05)이다.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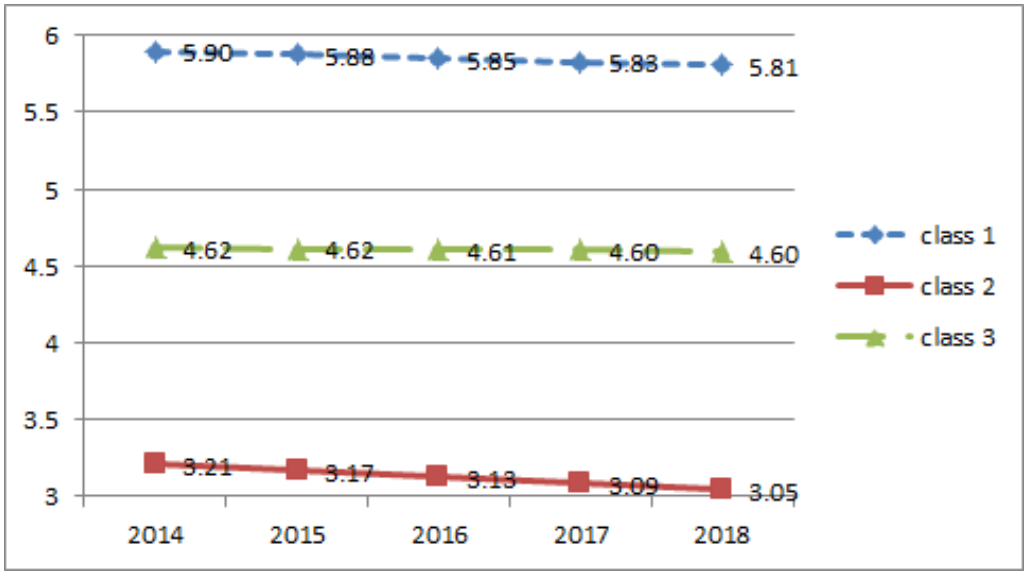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5.899***(.046)	-.023**(.009)
2	3.210***(.293)	-.041(.054)
3	4.621***(.088)	-.006(.011)

* p<.05, ** p<.01, *** p<.001

3.3 잠재계층에 따른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 비교

BCH 방법을 통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Table 5 참조).

분석 결과, 먼저,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모두 잠재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 Class 1: high-level decreased group, Class 2: low-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mid-level unchanged group
Fig. 2. Profile plot of the 3-class model

Table 5. Relations of the three latent classes to the outcome variables

Variables	Latent Classes	M	S.E.	Overall test χ^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Grit	Class1	3.462	.022	34.925***(2<3<1)
	Class2	3.066	.066	
	Class3	3.368	.024	
Life satisfaction	Class1	3.564	.020	15.602***(2<3<1)
	Class2	3.272	.080	
	Class3	3.497	.022	
School involvement	Class1	4.087	.046	30.874***(2,3<1)
	Class2	3.358	.191	
	Class3	3.734	.059	

※ Class 1: high-level decreased group, Class 2: low-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mid-level unchanged group
* p<.05, ** p<.01, *** p<.001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의 경우, 잠재계층 1 집단(상수준 감소 집단)이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3 (중수준 무변화형 집단)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은 3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인 상수준 감소 집단(763명, 52.6%)은 5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

을 보이며,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잠재계층 2인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57명, 3.9%)은 5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을 보이며,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잠재계층 3인 중수준 무변화형 집단(630명, 43.5%)은 5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을 보이며,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으로 전이되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가치와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부모 교육은 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자녀가 낮은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를 느낄 가능성이 작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28]. 또한 부모의 양육 특성 및 부모-자녀 간 애착 관계가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16, 17].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육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29], 행복한 어머니는 스트레스 대처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양육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더 큰 행복감을 느낄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19],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형),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학교 참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관점이 교사, 학교, 자녀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29]. 반면, 행복한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 관점이 교사, 학교,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사, 학교,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적극적인 학교 참여를 촉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대다수 연구들이 횡단 자료를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자녀특성 요인, 가정배경 요인, 학교 요인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7-8],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변인임을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복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중, 고등학교 시기의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예: 학교방문, 학부모 상담, 부모교육 참여, 교육기부 등)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 Lyubomirsky, L. King, E. Diener,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No.6, pp.803-855, 200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31.6.803

[2] L. A. Newland, "Family well-being, parenting, and child well-being: Pathways to healthy adjustment", Clinical Psychologist, Vol.19, No.1, pp.3-14, 2015.
DOI: https://doi.org/10.1111/cp.12059

[3] K. Nomaguchi, M. A. Milkie, "Parenthood and well-being: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82, No.1, pp.198-223, 2020.
DOI: https://doi.org/10.1111/jomf.12646

[4] Y. J. Choi, I. J. Park,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sense of community, happiness and ego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05, pp.49-81, 2017.

[5] J. Y. Bae, H. S. Doh, "Actor-partner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happiness and depression on parenting behaviors of parents with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1, No.3, pp.65-80, 2020.
DOI: https://doi.org/10.5723/kjcs.2020.41.3.65

[6] E. K. Adam, M. R. Gunnar, A. Tanaka,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Vol.75, No.1, pp.110-122, 2004.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657.x

[7] E. Y. Kim, S. B. Kwon, M. J. Chin, "An analysis on factors of parent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using multi-level mod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5, pp.521-540,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5.521

[8] S. K. Yang, H. C. Kim, J. H. Nam,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 schools, using a decision tree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8, No.3, pp.315-342, 2011.

[9] G. Mwinnyaa, T. Porch, J. Bowie, R. J. Thorpe, "The association between happiness and self-rated physical health of African American men: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Vol.12, No.5, pp.1615-1620, 2018.
DOI: https://doi.org/10.1177/1557988318780844

[10] S. Lyubomirsky,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No.2, pp.137-155, 1999.
DOI: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11]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34-43,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1.34

[12] Ş. Özbiler, M. Beidoğlu, "Maternal subjective well-being intervention effects: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perception of the parental role", Current Psychology, Vol.39, No.3, pp.1020-1030, 2020.
DOI: https://doi.org/10.1007/s12144-018-9818-6

[13] Y, J. Hur, "Gender difference of longitudinal structure between par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computer game and adult content poisoning, friendship",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7, No.4, pp.171-195, 2019.
DOI: https://doi.org/10.31352/JER.17.4.171

[14] Y. A. Kang, T. S. Shin, "An analysis of cause and effect transitions among parents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latent transition analysis using growth mixture model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9, No.3, pp.185-211, 2018.

[15] H. J. Lim, S. R. Le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31, No.1, pp.109-127, 2020.
DOI: https://doi.org/10.20972/Kjee.31.1.202003.109

[16] H. W. Chung, S. Y. Park,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grit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parental, peer and teacher factor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8, No.1, pp.135-167, 2020.

[17] S. M. Park, U. I.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8, No.2, pp.29-49, 2020.

[18] Y. C. Roh, H.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6, pp.2625-2640, 2012.

[19] N. Richter, R. Bondü, C. K. Spiess, G. G. Wagner, G. Trommsdorff, "Relations among maternal life satisfaction, shared activities, and child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Vol.9, 739, 2018.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8.00739

[20] S. R. Kim, S. H. Lee, Y. J. Koo, K.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4, pp.139-154,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4.139

[21] S. B. Kwon, W. S. Kim, M. J. Chin,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 on child'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2, pp.119-138,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2.119

[22] G. O. Kohl, L. J. Lengua, R. J. McMahon,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Conceptualizing multiple dimens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family and demographic risk facto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8, No.6, pp.501-523, 2000.

[23] http://panel.kicce.re.kr

[24] H. M. Kim, M. H. Hwang,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Vol.35, No.3, pp.63-74, 2015.
DOI: http://dx.doi.org/10.25020/je.2015.35.3.63

[25]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26] H. J. Park, J. O. Kim, Y. H. Son, "The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trend of the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ce and its predicto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6, No.4, pp.105-127, 2015.

[27] B. Headey, R. Muffels, G. G. Wagner, "Parents transmit happiness along with associated values and behaviors to their children: A lifelong happiness divide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6, pp.909-933, 2014.
DOI: https://doi.org/10.1007/s11205-013-0326-7

[28] G. Rees, J. Bradshaw, "Exploring low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ldren aged 11 in the UK: An analysis using data reported by parents and by children.",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11, No.1. pp.27-56, 2018.
DOI: https://doi.org/10.1007/s12187-016-9421-z

[29] N. Rochimah, M. C. Handini, H. Hapidin, "Effect of family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in integrated waste treatment places: Path analysi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 No.2, pp.97-112, 2020.

[30] M. S.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f mother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p.57-76, Vol.11, No.3, 2012.

[31] H. M. Lee, Y. J. Han,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1, No.5, pp.85-98, 2020.
DOI: http://dx.doi.org/10.5723/kjcs.2020.41.5.85

[32] H. S. Choi, S. Y. Han,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 grit, academic helplessness, and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3, No.1, pp.103-126, 2021.
DOI: http://dx.doi.org/10.36431/JPE.13.1.6

[33] S. Y. Kim, M. J. Chin,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s' School-based Involvement: Do They Differ among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amily and Culture, Vol.27, No.2, pp.27-60.

[34] E. O. Jun, N. Y. Choi, "Mother's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and preschooler's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 No.82, pp.103-126.

[35] A. R. Choi, Y.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life stress of children in response to the 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mother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1, pp.337-351, 2015.

[36] H. W. Chung, Y. R. Kim, S. Y. Park, "Exploring variables on gri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pplication of penalized reg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8, pp.673-693,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8.673

[37] D. H. Lee, D. H. Lee, H. Y. Jung, "Latent profile analysis of PTSD symptoms and PTG among adults in South Korea: The differences in binge eating, non-suicidal self-Injury,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9, Vol.25, No.4, pp.325-351.
DOI: http://dx.doi.org/10.20406/kjcs.2019.11.25.4.325

[38] E. M. Yeon, H. S. Choi, "Latent profile analysis to identify work-family conflict: Comparison between two-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4, pp.253-271,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4.253

[39] H. J. Lim, "Type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social contribution goal: Focusing on sense of community, citizenship, and life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0, No.4, pp.1011-1037, 2019.

[40] B. S. Lee, "The effects of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on children's academic stress: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through career matur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37, pp.147-177, 2017.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